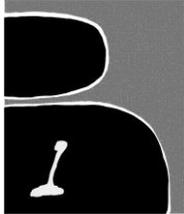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법회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붓다회나 미국 부다나라로 연락 바랍니다. Daum 카페: 한국붓다회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St. Louis Buddhanara Temple	Atlanta Buddhanara Temple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Every Tuesday 6:30 p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Intensive Meditation 7:00 PM – 10:00 PM: Fourth Tuesday of the Month	☺ Every Tuesday 6:00 pm Meditation for the Beginner

이달의 법구경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살자.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비로 살자.

O let us live in joy,
in love amongst those who hate!
among men who hate,
Let us live in lov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당: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당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덕승총림 방장 설정스님 동안거 결제법어

甲午年 冬安居 結制 法語

참 성품은 모든 반연을 다 끊었고
 참으로 보는 것은 경계를 依持하지 않는다.
 참 智慧는 본래로 걸림이 없고 끝이 없어서
 위로는 모든 부처와 契合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진실하고, 이르는 곳마다 청정하여
 티끌티끌이 모두 부처일 뿐이다.
 眞相은 말할 때도 소리가 없으나
 그 모습 뚜렷한데 몸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由自在요 無碍는 圓融이다.
 照用은 同時로 하되 逆順에 걸림이 없고,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며
 十方世界에 울음이 自在하고 圓融하게 통하여
 당당하고 활발하여 짝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본래로 菩提의 世界요
 향하사 같은 世界가 그대로 청정한 寂滅道場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고요하고 맑으며, 신령스럽고 廣大하여
 生死와 涅槃도 없고 去來도 없어서
 어떠한 名相과 言語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

喝水和聲絕
 響山並影非
 聲色通身路
 金鳥夜半飛

할을 한 번 하니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또 한 번 할을 하니 산과 산 그림자마저 아닌데
 聲과 色이 통하는 길에
 金鳥(해)가 밤중에 날으더라.

이제 甲午年 冬安居 結制가 시작 됩니다.
 佛祖가 證得한 無上大道를 成就하는 것이
 우리들의 目標일진대 힘써 정진하십시오.

甲午年 冬安居 結制 法語
 德崇叢林 方丈 雪靖

팔자대로 살아야한다면 불교를 왜 믿겠는가
 자신의 미래 업을 결정해가는 주인공

정운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동국대 선학과 강사

수행은 하루 윤회 벗어나는 해탈이요, 1년·10년 윤회 벗어나는 지름길이라

펜실베니아대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은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창시자이다. 마틴이 수년 전에 이런 논리를 내놓았는데,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실험이다. 상자에 개를 집어넣고 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 개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음을 경험한다. 그런데 개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개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학습되어진 것이다. 또 닭의 다리에 끈을 달아 말뚝에 매어두고 주위를 하얀 백색가루로 원을 그려 놓았다. 닭이 처음에는 그 원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친다. 수여일 뒤에 말뚝에서 끈을 풀어주었는데, 그 닭은 그 백색가루 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닭 또한 학습된 무력감에 길들여진 것이다. 심리학자의 학습된 무력감을 대하면서 순간 뇌리에 무언가 탁! 스치었다. 과연 축생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실은 인간도 이런 학습된 무력감과 경험에 안주해 살고 있다. 과장된 억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그릇된 삶의 방식을 탈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저 실험 원리는 인간이 구태의연하게 타성에 젖어 사는, 혹 자신을 개발하지도 진보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카르마(karma), 업(業)에 묶여 사는 것과 같다. 업이란 연기설에 기초하는데, 한 인간의 삶이란 시공간의 연기 속에 놓인 존재이다. 시간적으로, 한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 취미 등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과거세부터 비롯된 현재의 존재이다. 또 공간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부모, 교육받은 곳 등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즉 어느 누구나 사람은 과거의 인격적, 도덕적, 정치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기된 시공간 속에서 자신이 과거 경험으로 축적된 업의 총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업으로 축적된 존재라면 정해진 업대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 중에는 불교를 마치 할머니들이 말하는 팔자 개념, 혹은 숙명대로 받아들이는 진리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한 마디로 불교의 업설은 전혀 그렇지 아니다. 팔자 개념대로 살아야한다면, 불교를 왜 믿겠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과거에 자신이 만든 경험의 총화이지만, 현재에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진리의 업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란 실체화된 이미지(自我)가 아니라 업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라는 뜻이다. 저 앞의 학습된 무력감과 비추어보면, 학습된 무력감에서 탈피해 진보된 존재로서 주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업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과거 업을 수용하고, 참회함으로서 현 자신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대가 시시각각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데, 미래는 얼마든지 선업(善業)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주체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경험에서 선한 쪽으로 자신의 미래 업을 결정해가는 주인공이다. 그러니 자신의 고정화된 관념이나 개념(frame)을 내려놓고, 집착심을 갖지 않는 것,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앞의 학습된 무력감과 같은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수행함은 바로 하루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요, 더 나아가서는 1년의 윤회에서, 10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마음을 다스리는 글

화는 마른 솔잎처럼 조요히 태우고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라
역성은 여름 선들바람이게 하고
칭찬은 징처럼 울리게 하라.....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라
인내는 질긴것을 씹듯하고
연민은 아이의 눈처럼 맑게 하라.....

남을 도와주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일은 힘겹게 구하라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 두어라.....

미움은 물처럼 흘러 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났으며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며
몸을 타인의 물건을 맡은듯 소중히 하라....

시기는 칼과같이 몸을 해하고
욕심은 불과같이 욕망을 태우니
욕망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 모두 상하리니
모든일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척 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내 삶이 비록 허물 투성이라 해도
자책으로 현실을 흐리게 하지 않으며
교만으로 나아감을 막지 않으리니.....

생각은 늘 게으르지 않게하고
 후회 하기를 변명삼아 하지 않으며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이라 믿어하며
 절대 감사한 웃음을 흘리지 않으리니.....
 후회하고 다시 후회 하여도
 마음 다짐은 늘 바르게 하리라
 오늘도 또 반성하고 내일은 희망 이어라.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애틀랜타 붓다나라 불사의 현장

☞ 붓다나라 도량에 나무심기 불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Gwinnet County 에서는 주차장 과 Gravel Springs Rd. 와 사찰 경계부분에 심은후 Inspection 까지 요구하는 Black Gum 나무 (10 피트) 두그루 와 Blue Pacific Juniper 78 그루에 대한 Inspection 을 모두 통과 했습니다. 다음은 사찰에서 사찰 전경에 맞는 나무들을 심을 차례입니다.

사찰 전면과 주변은 주로 제주 왕벚꽃나무, Dogwood, 연산홍; 사찰 주변, 나무와 나무사이 호수와 가까운 쪽은 단풍나무 등이 심어집니다.

철판에 새겨진 동참자 이름은 커가는 나무와 함께 사찰을 장엄할 것입니다.

동참비와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제주 왕벚꽃나무 (5 겐런, 높이 6 피트) - \$150, 단풍나무 (7 겐런) - \$100, Dogwood : 핑크색 (5 겐런) - \$100
 연산홍 (Rosebud Azalea) 400 그루 시주: 무주상 보시 (보시 완료)

과실수: Fuyu 단감 나무 2 그루, Rainier Cherry 나무 4 그루, 매실나무 2 그루, 대추나무 1 그루



사찰정면에 심어진 나무들과 Blue Pacific Junipers



호수주변에 심어진 나무들

☞ 제주 왕벚꽃 나무 시주자 명단 (12 월 7 일): 동참하신 분들 나무 식수 완료

- 1.오원 현일 스님 Bhikkhu Hyunil ; 2. 연암 선각 스님 Bhikkhuni Sungak ; 3. 경자생 상품행 변지연 Ji Yeon Hicks ; 4.병자생 한정언 Jungun Han ; 5. 경진생 장복도 Bokdo Jang ; 6. 병자생 한서경 Seokyung Han ; 7.기묘생 한주영 Juyoung Han ; 8.갑자생 조민우 Minwoo Cho ; 9.정축생 보리행 서석용 Seokyong Seo ; 10.을해생 사리자 임명환 MyungWhan Rim ; 11. 이지민 Michelle Jimin Lee ; 12. 이정민 Alice Jungmin Lee ; 13. 손종필 Jongpil Shon ; 14. 손명정 Andrew Shon ; 15. 손선영 Sunyoung Shon ; 16. 남영순 Youngsoon Nam ; 17. 윤철용 Chad Yoon ; 18. Larry T. Owens ; 19. 법계성 Yong Owens ; 20. 갑술생 고미성 Misung Ko ; 21. 경진생 고명섭 Myungseop Ko ; 22. 갑인생 이종철 Jongchul Lee

☞ 단풍나무 시주자 명단 (12 월 7 일): 동참하신 분들 나무 식수 완료

- 1.경진생 한도연 Mary Ann Ha ; 2. 임인생 임지영 Jiyoung Rim ; 3. 경자생 김두철 Doochol Kim ; 4. 을축생 김남균 Lawrance Kim ; 5. 정묘생 김경아 Toni Kim ; 6. 계묘생 진오 임재현 Jaehyun Rim ; 7. 정미생 수연성 강삼화 Samhwa Kang ; 8. 을해생 임정민 Jenny Rim ; 9. 정축생 임우종 Michael Rim ; 10. 경술생 발심행 임소영 Soyung Rim ; 11. 윤혜림 Hearim Yoo ; 12. Dr. Lisa Hammond

☞ 연산홍 (Rosebud Azalea) 400 그루 시주: 무주상 보시 (12 월 7 일) :2015 년 3 월에 식수예정

♣ 동지(冬至)엔 팔죽으로 한해 액운 막아내자. ♣

▲ 동지의 유래와 세시풍속

동지는 팔죽을 쑤어 먹고, 달력을 나눠가지는 날이다. 동지는 24 절기의 스물두 번째이고, 해가 적도 아래 23.5 도의 동지선(冬至線, 남회귀선:南回歸線)과 황도 270 도에 도달하여 밤이 제일 길다. 대설과 소한의 중간에 있으며, 24 절기 중 가장 큰 명절로 즐겼다. 옛 서양 사람들은 이날을 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잔치를 벌여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고대 로마력(曆)에서 12 월 25 일은 동지(冬至)날이었고, 유럽이나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방,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이 동지를 설날로 지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지를 작은설, 즉 다음 해가 되는 날이란 의미로 ‘아세 (亞歲)’라 했다. 음력 11 월을 동짓달이라고 할 정도로 11 월은 동지가 중심이다.

▲ 동지 팔죽

'동지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동짓날에는 팔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참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팔죽에는 자기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넣어 먹었다.

동지팔죽은 이웃에 돌려가며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절에서도 죽을 쑤어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팔죽을 먹어야 겨울에 추위를 타지 않고 공부를 방해하는 귀신들을 멀리 내쫓을 수 있다고 여긴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있을 때에도 팔죽, 팔떡, 팔밥을 하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동지가 동짓달의 초승에 들면 애동지, 중순이면 중동지, 그믐이면 노동지라고 한다.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고 대신 팔 시루떡을 찌서 먹었지만 지금은 상관없이 쑤어먹기도 한다. 붉은 팔죽을 먹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 공공씨의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천연두)귀신이 되었는데, 그는 생전에 붉은 팔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짓날 팔죽을 쑤어 귀신을 내쫓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죽을 먹는 실제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겨울철 영양섭취가 부족하고 밤이 가장 긴 시기에 가족이 모여 영양식을 먹으면서 어둠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동짓날 한겨울 기나긴 밤에는 새해를 대비해 복조리와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복조리는 쌀에 든 돌 등을 가려낼 때 사용하는 것인데 새해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복 조리 사려"를 외치며 다녔다. 복조리를 부뚜막이나 벽에 걸어두고 한해의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빌었다. 음력 십일월부터는 농한기다. 하지만 이때 아녀자들이 할 일은 더 많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메주쓰기와 무말랭이 등 각종 마른나물 말리고 거두기에 바쁜 철이다.또 깊어가는 겨울밤 화롯불에 추위를 녹이며,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 동치미와 함께 먹기도 했는가 하면 달디 단 홍시감을 먹기도 했다.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을미년 정초기도 안내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 년 을미년 양띠 새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의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붓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정초삼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정초 삼일기도- 회향을 일요법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 4 일간 기도합니다. (기도 동참비 \$100.00)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양력 1 월 1 일 목요일 - 양력 1 월 4 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음력 1 월 1 일(양력 2 월 19 일) 목요일 - 음력 2 월 4 일(양력 2 월 22 일) 일요일
--	---

올미년 양띠해에 기도 동참하신 가족들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의 힘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마음뒹아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법회소식 NEWS

- 2015년 올미년 양띠해 정초 3일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 동참비 \$100.00)
 정초 삼일기도- 회향을 일요일로 일정에 맞추다 보니 4일간 기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양력 1월 1일 목요일 - 양력 1월 4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음력 1월 1일(양력 2월 19일) 목요일 - 음력 2월 4일(양력 2월 22일) 일요일
--	---

- 애틀랜타 붓다나라 1박 2일 정진 및 행복법회 안내: 동지를 맞이하여 애틀랜타 붓다나라에서는 1박 2일 정진 및 행복법회가 있습니다. 참선, 기도, 좌담회,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3일 토요일에는 입재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자 저녁식사후 입재 시간 10분전까지는 법당으로 모여주시고, 일요일 점심 공양에 관한 내용은 14일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공지사항 시간에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습니다.
 일시: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8시입재 -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회향 .
-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동지 법회는 3째주 정기법회때 있습니다.
- 애틀랜타 붓다나라 참선법회를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9시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1까지 약 2시간동안 참선, 다도, Q&A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현지인들이 참석하므로 모든 법회 진행은 영어로 합니다. (토요 참선법회가 뿌리를 내리는 데로 화요일 저녁 참선 법회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찰로 문의 바랍니다.)
- 그동안 사찰이 애틀랜타 지역에 없는 관계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 매달 소식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법당 입구에 소식지가 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2015년 1월달 붓다나라 소식지부터는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 발송을 중지합니다. 붓다나라 소식지는 붓다나라 홈페이지에도 매달 올려놓으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우편으로 발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시면 별도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와 미주리주 지역을 제외한 타 주는 계속해서 붓다나라 소식지를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Grage Sale 안내: 애틀랜타 붓다나라 신도회에서는 그라지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경에 계획하고 있는 Grage Sale 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심행 임소영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2015년도 달력시주 동참을 기다립니다.
-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모두 건강하게 법회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11월 인등기도 동참자 : 72번 원주후인 변기연 영가 (행효녀 상품행 변지연 복위), 73번 인등유인 장영실 영가 (행효녀 상품행 변지연 복위), 74번 정원모 영가 (행효녀 상품행 변지연 복위), 75번 경자생 상품행 변지연, 76번 임진생 변춘옥.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나무 심기 시주자 명단은 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당 참선 좌복 시주: 무주상 보시(\$1,200.00)

2015년도 달력시주 동참자: 현심행 김설아, 김숙향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